

특별기획

새만금 해안선 정부통계 반영

해양조사원, 2호 방조제 등 10.5km 강제시에 통보



정읍시 입암면, 어르신 청소봉사

정읍시 입암면 직원들이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서 생활하던 노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면 직원들은 지난 4일 채윤봉 봉사단체 등 20여명과 함께 A(84세,여)씨의 집을 찾아 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했다.

면에 따르면 저장각박장과 공장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10여년 전부터 각종 쓰레기를 방 안에 쌓아 둔 채 생활해 악취가 심한데다 상한 음식을 먹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 주변 정리와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몇 번 나섰지만 A씨의 완고한 태도로 청소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 따라 면은 10여 차례를 넘는 방문과 설득으로 청소 승낙을 받아냈다.

면 관계자는 "어르신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폭염대비·재난관리 강화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기후변화 및 여름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특보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비하여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년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관리와 폭염 취약지역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김제시는 안전개발국장을 총체적으로 관련 부서별 합동 TF팀을 3개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 구축 재난취약계층 6,079명에 대한 보호 대책 추진과 재난도우미 128명을 확보하여 건강관리하고 있다.

특히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노인정, 금융기관, 관공서 등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을 무더위쉼터 261개소 지정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무더위쉼터 1개소당 냉방비 10만원씩 정액 지원하여 쉼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 초·중·고학생, 유치원생, 농민,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4:00~17:00)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과 도로 긴급 살수작업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열섬현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사회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현충일 추념행사 가졌다

김제시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하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위훈을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그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제1주년 현충일 추념행사를 지난 6일 성산공원내 충혼탑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이진식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보훈 단체장과 유가족,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공무원, 학생,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조포발사, 현화분향, 이진식 시장의 추념사, 헌시낭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추념사에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희생정신을 받들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의지를 드높이고 국가안보의식을 재강화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정부 통계에서 사라졌던 김제시 해안선이 되살아났다.

우리나라의 해안선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호 방조제(4.7km)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km)를 김제시로 관할 결정된 것과 해안선 반영을 위한 김제시의 끈질긴 요구로 새만금 방조제를 해안선으로 반영하여 정부 통계를 재 산정하고 김제시에 10.5km(2호 방조제 9.9km와 새만금 33센터 인근 해안선 0.6km)의 해안선 통계를 통보하였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어민의 생존권 확보와 백년대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새만금 김제 몫

하였던 곳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김제시에는 37km의 해안선이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김제시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정부통계에서조차도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졌다.

해안선이 사라지면서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1,500세대 3,329명 김제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지방어항인 심포항과 6개소 소규모 어항이 폐쇄되는 등 김제시의 해양도시로서 성장 동력이 차단되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어민의 생존권 확보와 백년대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으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생겼으며 이번 국립해양조사원의 새만금 방조제 해안선 통계 반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에게 바닷길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이번 2호 방조제 해안선 정부통계 반영으로 새만금 앞 바다를 김제시 연안관리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체 어항 확보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김제시가 명실상부 새만금 해양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회사에서 임기태의장은 "그동안 부안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180억 원에 달하는 부안군 부채를 줄여 부채 없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열어

11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활동

부안군의회(의장 임기태)제273회 제1차 정례회가 7월 11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개회사에서 임기태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정단 임기가 끝난다"며 "그동안 부안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생과 협력, 균형 있는 경제를 통해 부안군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며 "집행부에 서도 잠자침 대비 재난시스템을 점검해 군민이 애써 일군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180억 원에 달하는 부안군 부채를 줄여 부채 없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 의장은 "201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가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누에고치 필링 테라피, 오디 수확 등 다채로운 체험에 축제장은 신기함과 재미로 가득했다.

'부안 참뽕축제' 성황리 마쳐

전국 5000여 탐방객 다녀가... 뽕잎비빔밥 등 호응

청정 해역의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군의 특화작목인 부안 참뽕오디와 누에를 주제로 한 제2회 참뽕축제가 큰 호응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누에고치 필링 테라피, 오디 수확체험, 오디 청 만들기, 오디고향찜, 뽕잎 죽석도토리묵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얼음 오디 빨리 먹기, 신통뽕뽕 누에 올림픽, 형형색색 누에 관찰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엄마야빠에게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신기함과 재미를 주어 축제장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또 유유미를 유물과 마을역사사 진을 전시, 유유미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 누에터운과 청소년 수련원 참뽕연구소와 유유 마을 전체는 하나의 피크닉 장소로 마을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구매할 수 있었고 어머니 손맛이 담긴 뽕잎비빔밥과 뽕잎튀김, 오

디생과와 뽕잎잡아찌는 참 뽕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행히 누에고치 필링 테라피, 오디 수확체험, 오디 청 만들기, 오디고향찜, 뽕잎 죽석도토리묵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얼음 오디 빨리 먹기, 신통뽕뽕 누에 올림픽, 형형색색 누에 관찰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엄마야빠에게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신기함과 재미를 주어 축제장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정읍농기센터, 도시민 초청 '팜파티' 운영

정읍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지역농업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6차 산업 모델 개발 일환으로 도시 소비자를 농장으로 직접 초청하는 '팜파티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이다. 농촌체험 상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마케팅 모델이다.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과 재미를 주고, 직거래 장터를 열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체험 농장주 20여명을 대상으로 팜파티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교육에서는 팜파티 레크레이션에서부터 포장과 팜파티 음식개발까지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농장별 기초부터 실전 응용까지 실시해 농장주들의 역량을 키웠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팜파티는 소비자 직접 농촌문화를 경험하고, 생산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농가 생산물에 대해 신뢰를 쌓는 자리다"며 "앞으로 지역 콘텐츠에 따라 다양하고 알찬 팜파티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팜파티가 새로운 농촌체험·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달이 깔금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어제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GIFT SET 1.1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3 | 750ml 1ea/12%

GIFT SET 4.4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5 | 375ml 5ea/13% | GIFT SET 6.6 | 500ml 청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7 | 375ml 2ea/13%

TEL : 083-504-0900
www.gangsanwine.com